

난임 극복 41세에 첫 아이... '짱구' 안은 순간 벅찬 감동

'첫 출산' 강성자·곽형석 부부

10번 시험관 시술 끝 선물 찾아와 불안·초조했지만 희망 잃지 않아 "순하고 사랑 많은 아이로 자랐으면"

생후 만 3일된 아이를 품은 부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주변에서 축하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부부, 새근새근 잠을 자는 아이는 부부를 똑 닮은 모습이었다.

광주시 첨단에 거주하는 강성자(여·41), 곽형석 동갑내기 부부는 지난 9일 첫 아이를 품에 안았다. 노산과 초산, 난임을 극복하고 결혼 7년만에 얻은 귀한 아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산도 강 씨는 임신 37주 5일차 되는 9일 제왕절개로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 '짱구' (태명)는 이날 오후 3시 35분 3.03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났다.

12일 빛고를 여성병원에서 만난 이들 부부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만난 아이를 보며 벅찬 감정을 드러냈다. 강 씨는 "벅속에서 태동을 느끼긴 했지만, 정말 이 아이가 벅속에 있는 건지 실감이 안 났

는데 출산을 하고 아이를 직접 만나니 신기하다"고 말했다.

아이의 탄생으로 명절을 앞두고 양가 부모님에게도 뜻깊은 선물이 됐다. 부부는 손주를 본 부모님들도 기다리던 소식을 반가워하며 자신들을 닮은 것 같다고 서로 말하며 웃어보였다.

2017년 결혼한 부부는 자연임신이 어렵자 4년 전부터 시험관 시술을 시도, 10번 만에 출산에 성공했다. 시술을 시도하며 2번의 유산을 겪었던 강 씨는 일을 줄여가다가 지난해 11월 퇴사하고 출산을 준비했다. 지난 4년간 난임병원을 다니며 임신을 위해 노력했던 그는 올해 갑진년 새해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임신했다. 기다렸던 소식이었지만 임신 초기 유산을 겪었던 탓에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다가 4월 안정기에 접어들며 주변에 공개했다.

"시험관 시술은 남편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여자가 모두 감당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요. 그동안 임신이 되기를 기다리며 매번 시술을 했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주사를 맞고 난자를 채취하며 몸도 많이 안 좋아졌고 나이도 들어가다 보니 임신이 될까 안 될까 확신도 안 됐고요. 걱정되고 초조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제왕절개 결정 후 9일로 날짜를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아침에 양수가 터져 저

도 아이도 이날 나오려고 준비를 한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소중한 아이를 기다리며 강 씨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태교에 부담을 갖기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지냈다. 원래 좋아했던 꽃꽂이를 하고 평소 보지 못했던 책도 읽으며 임신 시기를 보냈다. 이날 남편 곽 씨는 덩달아 표정으로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렸다.

"옆에서 아내가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웠죠. 임신 사실을 알고 기뻐지만 실감이 안 났는데,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듣고나니 정말 내 아이가 태어났구나 느꼈습니다. 끝까지 잘 견뎌주고 고생했던 아내에게 가장 고맙고요. 아들을 만날 수 있어 가슴이 벅잡니다."

25년 차 박경아 간호부장은 그동안 어렵게 임신을 준비해 온 부부를 보며 함께 기뻐했다. 그는 기다리고 기다리다 만난 아이이기 때문에 순하고 착하고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자랄 것이라고 전했다.

"가정에서 양육자의 역할이 정말 큼니다. 우선 엄마가 건강해야 하고, 엄마가 행복하려면 아빠가 잘 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흐르든 때론 몸도 정신도 나약해지기 마련인데 그럴 때일수록 아내가 남편에게 의지를 하죠. 난임을 겪은 분들이 오랫동안 아기를 바라고 준비했기 때문에 양육을 잘 합니



12일 강성자·곽형석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일 된 남자 '짱구' (태명)가 엄마 품에 안겨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경아 간호부장, 강성자씨, 곽형석씨, 최향님 간호팀장.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다. 아기도 나를 기다리고 있던 아빠 엄마인지 알고 있는 거죠."

강 씨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보며 산욕기 동안 몸을 잘 회복하고 싶다고 했다.

"새로운 식구가 생겼으니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이 정말 기대돼요. 저와 남편이 적은 나이가 아니라 아이의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무엇보다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고, 주변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귀농 2년만에 수국 1만5000송이 출하...부농 꿈 활짝

'첫 수확' 만수농원 이우영 대표

'초짜' 농부 강진서 수국 재배 우수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소셜미디어 활용 판로 늘릴 것

"10년 쯤이면 1만평 수국 농장의 베테랑 청년 농부로 불리고 있지 않을까요? 성공한 젊은 농부가 돼 있을 겁니다."

회분에 물 주는 것조차 서툴기 짝이 없던 '초짜' 농부 이우영(24)씨가 올해 첫 수확의 기쁨을 맛봤다.

올 들어 자신의 첫 일터인 '만수농원' 가득 꽃을 피운 보라, 흰색, 연분홍 수국 등 1만 5000송이를 트럭에 실어 경기도 화훼시장에 내다 팔면서다.

"겨울부터 키워 내느라 힘들었는데 막상 출하하니 속 시원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물랐는데 책임감이 생기는 거 있죠. 애들(수국)이 시들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기도 하고... 학생 때 보지도 않던 작물 재배 관련된 책을 틈날 때마다 챙겨보고 표시해놓았다가 또 들여다보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이 대표는 2년 전인 2022년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강진에 1000평 규모의 땅을 빌려 수국 재배를 시작했다.

강진은 전국의 45%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수국 생산지다.

"대학 3학년 때 강진에서 실습을 받았거든요. 그때 알게 된 선배, 형님들께 배운 걸 졸업하고 바로 시작했어요. 실습했던 농장에서 2분 떨어진 땅에 하우스를 지었고요. 배울 때는 시키는 것만 하다가 재가 직접 하니깐 한 번이라도 더 꽃을 보게 되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옆에다 농막을 짓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우스를 찾아 꽃을 살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애들은 손이 간 만큼 잘 크고 꽃이 커요. 관심을 주는 만큼 줄기도 굵고요. 수국(水菊)이 물 수(水)잖아요. 여름엔 하루에 두 번씩 꼬박 물을 주고 지켜봐야 해요. 전 처음이라 일단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직접 하는 편이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말, 요즘 제 어머니가 합니다. 제가 학생 때는 올빼미처럼 새벽까지 PC방에 있다가 집에 들어와 낮에 하루종일 자는 생활을 반복했거든요."

수국 수확 시기는 보통 4월부터 8월 말까지다. 꽃이 피기 시작하는 3~4월, 꽃 수량이 가장 많은 5월만 해도, 매일 새벽 4시에 어김없이 눈을 떠 오전 8시까지 꽃을 따 박스에 담아 화훼시장으로 내보내는 일을 했다. 박스당 20송이 가량을 담아 40~50박

스를 만드는 데만 2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금세 오전이 지나간다고 한다.

농촌에 청년 농부들이 많아지는데, 정말 농업에 경쟁력이 있는 걸까.

"무슨 일든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화훼 농사는 매일 제 손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해주면 잘 자라거든요. 바쁘게 움직이고 신경쓰다보면 잘 커가더라고요. 땅은 거칠까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다만, 무작정 뛰어드는 것보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관련 기관을 찾아가 물어보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는 좋은 선배, 형님들을 만나서 여러 도움을 받았으니 운이 좋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럴 때 힘이 되는, 좋은 선배같은 기관이 많았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이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저도 여기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물론, 저도 젊은 농부들께 도움이 되는 선배 농부가 되려고 합니다."

1000평 규모의 만수 농원을 1만평 규모로 키워내는 것, 이 대표의 '꿈'이다. 최근 농기원의 도움을 받아 '우수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것도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이다.

"조금씩 비닐하우스를 늘리면서 꽃을 키워 다양한 곳에 판매하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스



강진에 있는 자신의 만수농원에서 키운 수국으로 올해 첫 수확의 기쁨을 맛본 젊은 농부 이우영씨가 수국 화분을 안고 카메라 앞에 섰다. (이우영 씨 제공)

마트판도 해야죠. 네이버 등 인터넷을 통해 제가 없어도 자동으로 꽃에 물주고 병충해를 살피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훨씬 수월하겠죠.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상점에 입점, 더 많은 분들께 제가 키운 꽃을 팔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판로도 늘릴 겁니다. 수국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부도 더 많

이 할 생각입니다. 플로리스트 등과 협업해 수국을 활용한 꽃 아트로 만수농원을 꾸며 관람객들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도 세워놓았습니다. 1만평의 수국으로 가득한 '만수농원'이라는 이름, 10년 쯤 뒤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민국 대표관광지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한국, 일본, 대만.. 마침내 홍콩까지!

아시아 신행로를 열다

코스타 세레나호 · 11만 4천톤 · 전장: 290m · 전폭: 35m · 수용인원: 3,780명 · 승무원: 1,100명

대한민국 크루즈 선도 기업

- 13년 연속 크루즈 전세선 운항
- 대한민국 크루즈 송객 1위

광주시사 1688-1104

한국 / 일본 / 홍콩 / 대만

아시아 4개국 크루즈 11일

2025년 1월 6일 인천항 출항

조기예약 40만원 할인 + 선착순 선실 우선 배정

예약 후 24시간 이내 1인 예약금 100만원 입금 및 9월 30일까지 완납 조건

내 측 2,890,000원~ 오션뷰 3,290,000원~

발코니 3,690,000원~ 스위트 4,490,000원~

인천항 - 오키나와 - 이시가키 - 홍콩(1박 2일) - 가림 - 부산항

- 홍콩의 낮과 밤을 모두 즐기는 홍콩 OverNight
- 겨울에 만나는 따뜻한 겨울(평균온도 22°C)
- 크루즈 특별 공연 · 이은결의 일루션 특별공연, 셀럽 특별 콘서트
- 롯데관광 크루즈 스타쇼, 가수왕 선발대회
- 13년 노하우! 한국맞춤형 특별진세션

이은결의 일루션 특별공연

롯데관광 특별 초청 게스트!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코스타 세레나에서 펼쳐집니다.

GRAND HYATT 제주 예약·문의: 1533-1234

기적포함내역: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된 당일여행 및 개별상품은 미적용 | 가이드/기사경비: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임(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여행경비는 예약별 가상계좌로만 입금받고 있습니다

- 종료규정: 일반여행업 제46호(서울시 중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 일반여행업 영인보증보험 10억원 가입
- 기획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
- 여행출발지: 인천/김해/대구/부산/청주공항
- 여행보험처리센터: 1588-8692
- 최소출발 10명(일부상품제외)
-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 교통편: 항공, 버스, 해리, 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항공기, 열차표, 입장권, 숙박권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